하루를 시작하며

나사못, 보행 및 차량 안전사고 더 나은 예방책

정 한 석
前 초등학교 교장·수필가

보도를 걷거나 차량을 운행해 커뮤니티 도로(약 8m 이하의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을 없앤 보행자 우선도로)를 통행할 때 먼저 염려되는 것은 보행자와 탈것(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에 승차해 있는 사람들의 안전이다. 이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으로 통행속도 감속 등 교통법규 준수, 보도나 도로변에 나사못 등 위험한 물건 방치하지 않기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산책을 하다 보면 보도블록이나 커뮤니티 도로에 나사못이 한두 개 보일 때가 종종 있다. 이럴 때면 현직에 있을 때의 두 가지 일이 문득 떠오르곤 한다.

한 가지는 승용차로 편도 50분 정도의 주행거리를 출퇴근할 때의 일이다. 어느 날 퇴근길에서 귀가까지 2~3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승용차의 움직임이 한쪽으로 조금 쏠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 감속 운행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뒤에서 오던 승용차가 앞질러 갔다. 미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집까지 얼마 안 남은 거리를 조심히 운행해 자택 근처 공영주차장에 무사히 도착했다. 잠시 원인을 찾아보니 조수석 타이어에 공기압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았다. 귀가 전 집에 전화 연락만 하고 곧바로 승용차를 몰아 근처의 카센터(자동차 정비소)를 찾아 점검을 받았다. 정비사가 머리 부분만 가까스로 보일 정도로 타이어에 깊숙이 박힌 못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사못에 의한 타이어 펑크가 원인입니다. 이처럼 나사못의 머리 부분만 조금 보일 정도로 타이어에 깊이 박혀있을 때는 공기가 한꺼번에 금방 빠지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 조금씩 빠지기 때문에 얼핏 보아서는 타이어 펑크임을 감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타이어는 주행 중 생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분이므로 타이어에 공기가 빠진 채 주행하게 되면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라는 친절한 설명에 마음이 편하고 감사함을 느꼈다. 다른 한 가지는 추운 겨울 아침 출근을 위해 서둘러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승용차에 문제가 생겼다. 오른쪽 뒷타이어가 다른 쪽에 비해 공기가 절반 정도 빠져 있었던 것이다. 당혹스러웠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먼저 근무처에 연락해 지각 신청을 한 후 카센터로 조심해서 승용차를 몰았다. 점검결과 원인은 이번에도 나사못에 의한 타이어 펑크였다. 지난번처럼 나사못의 머리 부분만 겨우 보일 정도로 타이어에 깊숙이 박혀 있어서 타이어 속의 공기가 며칠간 조금씩 천천히 빠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이런 피해를 보게 되었는지 쉽게 알 수 없었다.

이상은 누구나 한두 번 겪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주행 중 타이어 펑크는 생명과 직결되므로 더 나은 예방책 마련이 요구된다. 당국에서도 애쓰고 있겠지만 발 없는 나사못이 어떻게 해서 보도나 찻길에 나오게 됐는지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하고 보행 및 차량 안전 차원에서 보다 나은 예방책과 주민들의 교통법규 준수 및 관심과 협조를 병행해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시된다.

사설

바다오염 심각성, 간과해선 안된다

바다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해양 오염사고가 빈발, 막대한 오염물질 유출에다 오폐수 무단방류, 정체 불명의 오염물질 등장 등으로 제주 연안이 심하게 멍드는 현실이다. 지역사회가 청정 바다를 지키려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 '역주행'하는 꼴이다.

바다 오염의 심각성은 오염통계서 엿볼 수 있다. 제주해경 집계 결과 올들어 해양오염사고 21건 발생에 오염물질 유출량 119㎘ 였다. 지난해 15건, 2.4㎘에 비해 무려 50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7월 성산·한림항에서 잇따라 어선화재사고가 발생, 다량의 오염물질이 유출된 결과다. 유출량도 문제지만 건수도 전년보다 6건 늘었다. 일부 시민의 고의·실수에 의한 사례도 적지않다. 김녕해안서 이달 초 발견된 불명의 하얀색 작은 덩어리 물질 '소동'은 오염에 취약한 바다 현실을 보여준다. 해경이 문제의 하얀 알갱이를 성분분석중이지만 다시 밀려올 가능성에 불안을 더한다. 성산읍 광치기해변선 지난달 무단방류로 의심되는 80~100m 가량 기름띠 두 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어로활동중 버려지는 어구, 폐기물로 인한 바다오염은 이미 '중병'을 몰고왔다.

바다 오염이 여러 원인으로 빈발에다 더 심해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당국이 예방·단속활동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상황임에 분명하다. 도민들이 항·포구 환경파수꾼 역할을 강화하고, 오폐수 방류도 분리배출을 용이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항내 화재예방 강화와 선석난 완화는 더 절실하다. 행정 도민 모두가 바다 지키기에 '맞잡은 손'을 더 세게 잡아야 할 때다.

열린마당

공감은 친절을 불러일으킨다

현 하 림
서귀포시 녹생환경과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다 보니 내가 만나는 민원인의 유형 또한 다양하다. 공직자로서 민원인을 만나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겪는 일상적인 일이지만 내가 맡은 업무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로 돈과 관련되다 보니 다소 격앙된 감정으로 전화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 감정에 둘러싸인 민원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결국 민원인들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도움이다. 민원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함으로써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고 적절한 답변과 도움을 주면 민원인은 고맙다는 말로 화답한다.

공감은 친절을 불러일으킨다.

공감은 단순한 연민의 감정이 아니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이성적인 능력이다. 따라서 특별한 누군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 키울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는 더 친절해질 수 있다.

친절은 상대방에게 단순히 베푸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한다.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먼저 이해하기 때문에 상대를 보듬고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어 나도 상대방도 덩달아 친절해진다.

민원인에게 공감을 통한 친절을 베풂으로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배려해 그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안착 도와달라"

오세훈 시장에 협력 요청

○…오영훈 제주지사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오 시장과 면담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양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방안을 논의.

오 지사는 이날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세원 확충으로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어서 각 지자체가 기부를 적극 강조하는 실정"이라며 전 국민이 건전한 기부문화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이에 오 시장은 "제주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임하고 업무협약을 통해 마음의 고향 제주에 기부하는 것도 동참하겠다"고 화답. 고대로기자

휘발유가격 떨어진 이유는?

○…전국에서 가격이 높기로 알려진 제주도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 하락폭이 최근 전국보다 확대된 것으로 확인.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보면 20일 오후 기준 도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546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높고, 경유는 ℓ당 169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

도민들은 "전국적으로 최근 유류가격이 소폭 하락세이긴 하지만 도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비싼 수준을 보여왔는데 이달 초 제주자치도가 10~11월 도내 주유소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마진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는 발표 후에 가격이 눈에 띄게 떨어진 것 같다"고 언급. 문미숙기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지연 안타깝다

제주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기약없이 늦어지고 있다. 엊그제 증설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사업은 동부지역(조천·구좌)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최대 처리용량을 기존 1만2000t에서 2만4000t으로 늘리는 사업이다. 현재 1일 하수처리용량이 98.9%로 사실상 과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증설공사가 진척되지 않아 안타깝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공사업체는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19일 오전 공사 재개를 위해 차량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월정리 주민들은 문화행사를 열며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으면서 업체는 이날 공사 재개를 포기하고 철수한 것이다. 특히 주민들은 증설공사가 용천동굴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증설공사 재개를 둘러싼 주민들과의 충돌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순탄치 않아 우려된다. 하수처리장은 환경기초시설이다. 특히 동부하수처리장은 적정가동률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게다가 1일 최대 하수처리용량에 육박하고 있다. 동부지역의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증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생활하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알다시피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단기간에 후딱 끝낼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공사기간이 최소 2년반 넘게 걸린다. 따라서 증설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제주도와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길 촉구한다.

농공단지 토지 구합니다
면적 1,000평 이상 (시설물 있어도 무관함)
지역 제주도 내의 모든 농공단지
연락처 064-746-7100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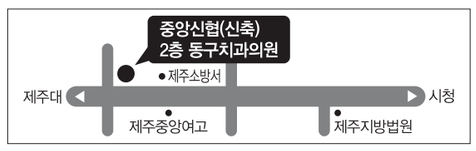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택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정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것인지 대학은 문과를 가야할 것인지 이공계열을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중3, 고1, 2년생 환영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복비 : 50,000원
전화 010-7301-7737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의 료 안 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524호
동구치과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 장 신 동 구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